

전북-제주, 우수 교육정책 공유

서거석 전북교육감-김광수 제주교육감, 정책협의회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등 6개 분야 협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등 우수정책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김광수 교육감은 3일 제주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협력 신장과 IB 프로그램, 인성 교육, 진로·진학교육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면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혁신 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정책기획·조정 △자율학교 운영 △IB 프로그램 △인성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와 IB 프로그램에 관심이 집중됐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가 개발한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탐구하고 토론하는 서·논술형 과정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IB 프로그램은 2019년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IBO와 IB 한국어화를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하며 후보학교 승인을 받은 이후 전국으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3일 제주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확대됐다.

이후 전북교육청도 최근 IBO와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하는 등 IB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요 교육 정책을 공유하면서 혁신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를 갖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교육 발전을 이루고, 이를 동력으로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과 제주교육청 간 상호 협력과 교육 정책 교류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과 공유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4일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표선고등학교를 찾아 IB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5~6일 부안서 대입지원단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5~6일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업무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해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다양한 진학지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정읍고 장진호 교사를 단장으로 총 133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대입진학지도 정보 공유 및 전략 수립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연수에서는 산상고 권오성 수능 전형팀장이 최근 이슈인 의대 증원과 무전공 학과 신설로 인한 2025학년도 대입의 변화'를 발표하고, 또 김진욱 서울여고 교사가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지원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의 희망 직무에 따라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에서 근로를 겸한 실무경험을 쌓고, 그에 따른 급여를 국가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석대학교는 지난해까지 총 24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재학생 1231명에게 현장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진로 취업 종합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진로 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본부·LINC 3.0 사업단 등이 중심이 돼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 왔다.

박노준 총장은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직무체험과 취업 역량 강화 등의 기회를, 기업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의 희망 직무에 따라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에서 근로를 겸한 실무경험을 쌓고, 그에 따른 급여를 국가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석대학교는 지난해까지 총 24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재학생 1231명에게 현장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진로 취업 종합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진로 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본부·LINC 3.0 사업단 등이 중심이 돼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 왔다.

박노준 총장은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직무체험과 취업 역량 강화 등의 기회를, 기업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현장실습학기제로 예비교사 역량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2028년 전면 시행 앞두고 올해 시범 운영... 전주·익산 6개 학교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현장실습학기제의 2028년 전면 도입에 앞서 올해 시범운영한다.

학교현장실습학기제는 기존 4주간 진행되던 교육실습과 별도로 한 학기 동안 교육과정·수업·평가, 생활지도 및 상담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는 교원 양성 교육과정으로, 2028년 전면 시행된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범 사업을 위해 교원양성기관 2곳과 실습협력학교 6개교 등 모두 8개 참여기관을 선정했다.

교원양성기관은 원광대와 전주대, 실습협력학교로는 전북기계공고·우림중·은화학교·이리북중·신흥중·원광여중이다.

원광대 가정교육과 1명과 영어교육과·한문교육과 각 2명, 전주대 가정교육과·수학교육과 각 1명, 과학교육과 2명, 중등특수교육과 3명 등 총 12명이 전주와 익산 등 6개교에서 교육실습을 하고 있다.

8개 참여기관은 △수업활동·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해 교원양성기관 2곳과 실습협력학교 6개교 등 모두 8개 참여기관을 선정했다.

교원양성기관은 원광대와 전주대, 실습협력학교로는 전북기계공고·우림중·은화학교·이리북중·신흥중·원광여중 등이다. /장은성 기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사업 설명, 실습협력학교 시범운영 성과 및 사례공유, 참여기관 협의회 구축 등을 통해 학교현장실습학기제의 안정적 시행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현장실습학기제가 현장 역량을 함양한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내실있는 실무형 교육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연수원, 신규교사 멘토링 직무연수 운영

3월 1일자 임용 36명 대상 멘토-멘티교사 첫 만남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4월부터 6월까지 신규교사 멘토링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3월 1일자로 임용된 36명의 초등·초등특수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영역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역별로 14명의 멘토교사를 구성, 신규교사가 직면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멘토-멘티교사의 첫 번째 만남이 진행, 이날 멘토-멘티교사 매칭, 소개 및 마음열기, 신규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 4월부터 6월까지 신규교사 멘토링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멘토-멘티교사의 첫번째 만남이 진행됐다.

사가 이야기하는 학교생활 고민 그리고 향후 멘토링 운영 계획 수립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교육연수원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학급경영과 생활지도', '학교문화와 교육혁신공동체' 등 신규교사 중심의 맞춤형 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병기 원장은 "교사는 홀로서기가

다 함께 했을 때 많이,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다"면서 "신규교사가 교직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멘토교사의 교직적응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공모사업' 선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공모사업에 평주·전라·제주권역 운영기관으로 선정, 3년간 총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일 전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에듀테크 실증체계의 안정적 구축과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교사, 기업, 지역이 함께하는 에듀테크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우수 수업 개발 및 교원 연수 스태프매니저 양성 △다문 화가정지원체계 구축 △적정기술지원 체계 마련 등의 특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AI 기반 에듀테크에 대한



지난 2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한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사진 왼쪽)이 양오봉 총장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대학30 사업 성공 협력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 전북대 방문 이스라엘 우수 대학과 교류 구체화 방안 모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한이스라엘 대사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구상된 '글로벌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아키바 토르(Akiba Tor)대사가 지난 2일 양오봉 총장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담을 나눴다.

앞서 주한이스라엘 대사와 만나 방산, 배터리, 사이버안보 및 AI등 분야 최첨단 기술 교류에 대해 협의할 바 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토르 대사와

양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핵심 연구 분야에서 이스라엘 우수 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오봉 총장은 "주한 대사들께서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지난해 우리대학이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담담히 선정될 수 있었다"며 "주한이스라엘 대사관과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의 우수 학생들이 이스라엘 명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에듀페이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집중신청 접수

전북자치도교육청, 11~25일... 상시 신청도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1~25일까지 전북에듀페이가 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9일까지는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 기간 중에는 토·일요일에도 전북에듀페이 콜센터를 운영한다. 전북은행도 전용콜센터 운영은 물론 일부 영업점 연장 운영(오후 6시까지)·토요일 운영(일부 영업점, 오후 12시~오후 4시)·임시영업소(장수, 임실 지역) 운영 등을 통해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카드(비우쳐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전북에듀페이카드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기 위한 전북교육청 특화카드. 11일부터 온라인(비대면)이나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북에듀페이 전용앱 또는 전북은행 측뱅크를 통해 가능하다.

순차적 카드발급을 위해 지역별로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전북에듀페이카드 지원비(바우처) 이용 금액의 0.1%를 사용자 이름으로 기부해 모든 학생이 나눔과 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설계해 나가는 동시에, 기부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내 정보업무 정상화하라"

전북교사노조

"2023년 이전 태블릿PC와 노트북 분실 건에 대한 교사가 변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업무지원센터'에 전산 행정직을 배치하고, 일선 학교에는 디지털 컴퓨터를 선별해 정보업무를 분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전북교사노조는 "2023년 이전에 일선 학교로 보급된 태블릿 PC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 분실사안에 대해 최근 일부 학교장들이 정보담당교사에게 변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2023년 이전 기기분실을 2024년 정보담당교사들이 변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는 정보담당교사가 '물품 운영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보담당 교사들은

그동안 자신이 물품운영관이라는 것 모르고 인지도 못한 채, 분실된 전자기기에 대한 변상을 해가며 정보 업무를 맡아왔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기기분실이 낮은 일부 학교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밝히며, 교무실무사가 기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의 분실률이 낮았다고 했다. 이는 교무실무사가 교무실 상주인력으로써, 기기 보관 및 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끝으로 전북교사노조는 "주당 20시 수 이상을 수업하며 전산행정직 업무까지 겸해야 하는 정보담당교사가 과연 '학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장은성 기자